

# 종교로 통하고 책으로 통하는 곳... 종교 서점이 주는 '특별한 행복'

## 기독교 서적 전문서점, 대한기독교서회 · 생명의말씀사

신앙생활을 하는 이라면 종교 서적으로 가득 찬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자는 닫힌 생각과 마음을 소리 없이 두드리고 그 파장은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영혼의 종교적 자성을 일깨운다. 일찍 부터 기독교에서는 '문서선교', 불교에서는 '문서포교'라는 표현으로 종교 서적이 가지는 파급력을 중요시 여겼다. 그런 종교 서적을 풍요롭게 접할 수 있는 종교 서점은 그래서 종교인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기독교 서점을 대표하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생명의말씀사', 두 곳을 다녀왔다.



대한기독교서회는 지난 1992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던 직매장을 종합기독교백화점으로 확장하여 개점하였다.

고 있는 김동근 부장의 말이다.

“온라인 매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통신 판매처럼 전화 주문이 차지하는 부분이 큼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전화로 주문하면 택배로 발송하는 식이지요.” 출판사를 모체로 하는 서점들이 그러하듯이 해당 출판사의 서적을 위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 '단골 고객의 편리함을 우선', 대한기독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는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 출판사의 직매장이기도 한 서회는 지난 1992년, 기독교문화 창달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문서선교를 위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던 직매장을 종합기독교백화점으로 확장하여 개점하였다.

서회를 찾는 고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된 고객들이라는 점이다. 전통 있는 기독교 관련 단체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 5가의 특성상 오래된 단골 고객들이 서회의 주고객층을 이룬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업 방식도 단골 고객의 편리를 위해 찾아가는 방식이 된다고, 서점사업부를 총괄하

김 부장은 대한기독교서회가 출간하는 서적이 학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1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신학대학에서 대한기독교서회 출판사의 서적을 교재로 썼을 만큼 학술적 성격이 강한 책들이라 매장에는 그 책을 위주로 진열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책을 구비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오히려 다른 기독교 서점에 비해 책 종수의 다양함이 월등한 편입니다.”

서회의 역사가 깊다보니 많은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 등이 서회를 거쳐 갔지만 지방에 내려가서도 잊지 않고 다시 서회를 찾아주는 고객들을 볼 때 직원들은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실



'생명의말씀사'는 바로 근처에 교보나 영풍이 있는 환경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종교서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제로 취재를 위해 서회에 머문 40분 동안 매장을 찾은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는 오랜 만에 만난 벗들 사이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오고간다. 서로의 안부나 집안의 경조사에 대한 얘기들이 부드러운 웃음과 나직한 목소리 속에 흘렀고 계산대에서도 기계적인 응대 대신 이웃 간의 담소 같은 친근한 인사가 우선이다.

교회 서점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매장을 찾는다는 김윤예 씨(62세)는 “일반 대형 서점에도 종교 서적은 있지만 이곳에 와서 느끼는 편안함은 없습니다. 굳이 이곳을 찾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서회의 매출 1순위는 당연히 성경. 종교 서점이라고 해서 성경류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 서적 외에 일반 서적을 취급하기에는 유통 마진이 맞지 않다. 김 부장은 간혹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고객들에게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일반 서적도 있기에 앞으로는 일반 서적의 유통도 시도해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직원들 모두 직장 이전에 문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객들에게 최대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유통 면에서 있어서 일반서적을 쉽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서회의 역사가 오랜 만큼 빠르게 변하는 것은 힘들지만 일반 서적의 유통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기독교 서점 대형화의 시대를 연 '생명의 말씀사'

평일 낮임에도 매장 안은 한산한 편이 아니다. 영어 서적 코너에는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띄고 어린이 서적 코너에는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이 독서삼매에 빠져있다.

“기독교인 고객이라고 해서 일반 고객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 관련서를 찾고,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 서적을 찾고 그런 거죠.

기독교 관련해서 교육서를 읽고, 영문서적을 읽고 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니 이와 어떤 성경 쪽과 관련한 서적들을 찾아 읽는 거죠.”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점(이하 말씀사) 박종식 과장의 말이다. 말씀사는 기독교 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 직영서점 1호이다. 중구 남대문로에 있던 매장이 1971년 현재의 신문로 구세군 회관 2층으로 이전하면서 기독교 서점 대형화의 시대를 연 것으로도 유명하다. 몇 년 전까지 매장 내에는 카펫이 깔린 널찍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휴게실이 매장 한 칸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서너 개의 테이블과 탁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배치해 여전히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장을 찾아 책에 대한 그리움을 해결한다는 김창국 씨(31세)는 자신이 말씀사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교보나 영풍에 가면 종교 서적이 있지만 제가 찾는 책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규모도 있고 영어 서적도 많아서 자료를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사 역시 서회와 마찬가지로 종교 서점이 갖는 고객과 직원 사이의 특별한 정서적 유대가 존재한다. 박 과장은 “책 안내를 하다보면 그 업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상담 아닌 상담도 하게 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드리게도 됩니다. 직원들 모두 책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교보나 영풍이 있는데도 말씀사를 찾아와 주는 고객들이 너무 고맙다는 직원들의 겸손함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고객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묻어난다. 종교로 한번, 책으로 또 한 번 통한 이들이 고객과 직원으로 만날 때 그 행복은 배가 되는 모양이다. 종교와 책이 주는 특별한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일상의 각박함을 잠시 내려놓은 것은 어떨지. **이주연**

취재\_ 이주연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